

탐의 진화

① 불탑의 기원

# 범마나 비바시불탑 햇불로 비취 광명 얻어

## 석가모니불 열반 이전의 탑

일반적으로 불탑이란 석가모니부처님의 유골인 사리가 봉안된 성스러운 건조물을 말한다.

그러나 반드시 석가모니부처님의 사리탑을 불탑의 기원이라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실존 여부를 밝힐 수는 없지만, 경전에는 수없이 많은 과거불의 열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과거불의 불탑을 조성하였다는 기록이 경전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석가모니불 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리불과 목련존자에 대하여도 사리탑을 건립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석가모니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봉안한 발탑과 손톱을 봉안한 조탑 등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경전에 전해진다.

더불어 석가모니불이 출가하기 전 태자로 지내던 시절에 기적 같은 놀라운 행동을 보이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러 장자 등이 불탑을 조성하였다는 경전의 기록이 있다.

### 1) 과거 부처님의 탑

과거불이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과거세에 출현하였던 모든 부처님을 말하는데, 경전에 따라 과거 7불, 과거 35불, 과거 53불, 과거천불 등 다양한 경설이 있다. 이러한 과거불이 입멸하면 당연히 불탑이 건립되었는데, <장아함경> 중 '유행경'에는 석가모니불의 제자 아난이 범마나 비구가 큰 광명을 지니게 된 이유를 물으니, 석가모니불은 범마나 비구가 과거 비바시불의 탑을 햇불로 비추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대정신수대장경 1권 21쪽 중단>

또, <육도집경> '보시도무극장'에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전생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여기에서도 불탑을 조성한 공덕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 불심이 깊고 덕을 많이 쌓은 사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100명이나 되었다. 백명의 아들 중 99명은 모두가 한 결 같이 출가하여 연각의 경지에 올랐으며, 한 명은 왕이 되었다. 이 왕이 백성들을 위하여 '탑을 세우고 절을 짓고 스님들에게 공양하며 경을 외우고 불법을 논하였다니, 입에는 4악(망어, 기어, 악구, 양설)이 없어지며 수명이 길어졌다. <대정신수대장경 3권 14쪽 하단>라는 내용이 전하며, <보살본연경>의 '토품'에는 석가모니불이 전생에 토끼의 몸으로 태어나 죽게 되었다. 이 때 한 비라문이 다음 생에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하며, 토끼의 몸을 땅 위에 놓고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아기를 안고 곧바로 죽은 토끼와 함께 불 속으로 뛰어 들었다. 그때 제석천이 이 일을 알고는 크게 공양을 베풀고 뼈를 거두어서 탑을 세웠다. <대정신수대장경 3권 66쪽 중단>

이 경설에서 주목할 내용은 과거세 불탑의 건립 주체는 불자들만이 아니라 제석천도 조탑 주체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제석천이 바라문의 보시행에 감복하여 그를 위하여 탑을 건립하였다는 것은 불탑의 종교적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설월광보살경>에 의하면, 석가모니부처님은

전생에 월광왕이었다. 그에게는 대월과 지지라는 신하가 있었다. 어느 날 악안이라는 심술궂은 바라문이 찾아와 월광왕의 목숨을 요구하자 왕은 자기의 머리를 보시하고자 하였다. 이때 대월과 지지는 왕이 신하들 앞에서 스스로 죽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왕 앞에서 먼저 목숨을 끊었다. 이에 왕은 애통해 하는 다른 신하들에게 "나는 죽어서 부처가 되어 중생을 구제하고 싶으니 죽으면 탑을 세워 공양하라"고 하였다. 왕이 스스로 죽자 신하들은 전단향나무로 그의 시신을 태워서 사리를 거두어 마니동산 및 네거리 길마다 탑을 세워 항상 공양하였다. 많은 중생이 이 동산의 탑 앞에 이르러 예경하고, 목숨을 마친 뒤에는 6육천 및 법천에 태어났다고 설한다. 이어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월과 지지는 사리불과 목련이요, 악안 바라문은 제바다타의 전생이라고 말한다. <대정신수대장경> 13권 8쪽 상단

이 경설에서 알 수 있듯이 석가모니부처님은 전생에 왕이었을 때 신하들에게 불탑을 조성하여 예경하라고 설함으로써 불탑 조성이 과거로부터 계승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 불탑의 기원 석가모니불 이전의 수도

#### 과거불 불탑조성 기록 경전에

#### 불자의 제석천도 불탑 건립 주체

#### 불탑의 의미 '종교적 의미' 커

#### 부처님 머리카락, 손톱 봉안한 발탑·조탑

#### 부처님 돌발우 불탑으로 생각하기도

### 2) 석가모니부처님 재세 당시의 탑

경전에 의하면, 과거불의 탑 이외에도 석가모니부처님 재세 시에 여러 가지 인연으로 탑이 조성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불보행집경> '판제이도품'에는 '싯다르타 태자가 출가할 때 상투를 자르던 곳, 몸에 가사를 걸치던 곳과, 차익과 건척이 되돌아간 곳에 탑을 세웠다. <대정신수대장경 3권 745쪽 상단>라는 내용이 전한다.

이 경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탑이 반드시 사리를 보관하는 용도로만 건립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즉, 할계탑, 가사탑, 차익건척회환지탑처럼 출가를 기념하는 장소에도 탑을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싯다르타 태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고행정진하다가 고행만이 답이 아니다! 현악기의 줄이 너무 강하게 당겨지거나 너무 느슨하면 좋은 소리가 날 수 없다며, 수자타 여인의 유미죽 공양을 받을 때, 함께 수행하던 다섯명의 수행자들이 더 이상 태자를 믿지 않고 그 결을 떠나게 된다. 그 후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녹아연한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다. 이때 그를 떠났던 다섯 수행자들은 태자를 길거리에서 만나게 된다. 이미 깨달음을 얻어



<사진1>

부처님이 된 싯다르타 태자를 길에서 처음 만난 오비구는 부처님을 환영한다는 의미의 영불탑을 조성했다. 차우칸디스투파라고 불리는 이 탑은 인도 사라나트 고고학 박물관 앞에서 약6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사진2>

인도 비하르에서 동쪽으로 약 11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케사리아 발우탑은 부처님의 발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탑이다.

부처님이 된 태자를 만나 뵙고 그들은 크게 환영하였다. 이 장소에 부처님을 환영한다는 의미의 영불탑을 조성하였다. <사진1 참조>

차우칸디스투파라고 불리는 이 영불탑은 인도 사라나트 고고학 박물관 앞에서 약 600미터 떨어진 지역에 있다. 이 탑은 원래 굽타왕조(4-6세기)시기에는 벽돌을 주재료로 하여 여러 층을 이룬 사각형의 사원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1567년 무굴제국의 황제 아크바르가 1532년에 그의 아버지 후마윤이 이 탑을 방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탑 정상에 이슬람 건축양식으로 8각형의 구조물을 추가로 조성한 것이다. 그 이후 폐허로 된 것을 1934년경 영국의 유명한 고고학자인 알렉산더 커닝햄 등에 의해 발굴되어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다.

석가모니부처님 재세 시에 부처님이 직접 탑을 조성한 예도 경전에는 기록되어 있다.

<불보행집경> '보시죽원품'에는 부처님이 5백 나한들에게 설법하자 모두가 열반에 들고 스스로 다비하였다. 그러자 허공에서 사리가 떨어지고, 부처님은 사리를 수습하여 탑을 조성하려고 하였다. 이 때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을 도와 진흙과 돌로 탑을 만들었다. 이때 부처님은 신비한 손과 그물 무늬의 손가락으로 친히 돌을 쌓아 탑을 완성하였다. <대정신수대장경 3권 857쪽 상단>라는 내용이다.

이 경설의 특징은 석가모니부처님이 탑을 조성하려고 하자 모든 비구들이 부처님을 도와 탑을 함께 건립하였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대승열반경>의 '비구는 탑 조성에 관여하지 말라!'라는 경설과 상반되는 것으로 주목이 된다.

한편, 석가모니부처님이 여러 지방을 순회하는 사이에 부처님 대신에 공양해야 할 대상에 대하여 부처님은 자신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주어 발탑·조탑을 조성하는 방법과 공양법을 설한 내용이 <십송물> 제 48권에 전한다.

급고독 장자는 부처님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받고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 탑을 조성할 것을 요청한다. 이에 부처님은 발탑과 조탑의 건립을 허락한다. 또한, 탑을 조성하는 원칙 몇 가지를 설하시는데, 남녀의 교합상을 제외하고 벽을 적색·흑색·백색으로 칠하고, 말뚝을 박아 일산을 고정시키며, 소·사슴·원숭이·개 등이 탑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정신수대장경 23권 415쪽 중단>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조성된 발탑과 조탑의 조

성 의미에 대하여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원시종교에서는 숭배대상으로 죽은 사람의 유골 외에 모발이나 손톱을 특히 중요시하는 풍속이 있었다. 또 생시에도 모발이나 손톱에는 갖가지 터부(taboo)가 있고, 그것들을 잘라 내버리는 것은 어떤 종교적 의례와 연결되기도 한다. 즉 잘린 모발이나 손톱은 그대로 버려서는 안 되고, 사당이나 묘지, 또는 나무 아래 등에 숨겨 묻기도 하였다. 이처럼 석가모니 부처님 재세 시에 건립된 발탑과 조탑의 탄생 배경에는 종교적 의미가 내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 재세 시에는 다양한 불탑이 건립되었는데 그 중에는 부처님의 발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발우탑의 경우도 있다.

현재 인도 비하르에서 동쪽으로 약 11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케사리아 발우탑<사진2참조>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 직전 발우를 신도들에게 전해주자 주민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리고자 벽돌을 주재료로 발우탑을 조성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 탑은 둘레가 약 430미터 높이는 약 46미터에 달하였으나, 1934년 지진으로 인하여 지반이 가라앉아 현재는 약 32미터의 높이를 보이고 있는 거대한 탑이다. 1998년 내부 발굴 당시 많은 유물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발우탑은 우리나라에서도 불보 사찰인 양산 통도사 경내의 봉발탑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방광대장엄경>제24품인 '상인몽기품'에 의하면, 싯다르타 태자는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여 7일이 지난 후 목욕하고 42일 동안 바라나시를 향하여 걸었다. 이때 지나던 상인들이 부처님에게 급발우나 칠보발우에 음식을 담아 공양을 올리자 부처님은 공양받기를 모두 거부하고 오직 사천왕만이 올린 돌발우에 공양을 받는다. 그 이유를 묻자 부처님께서는 이 돌발우는 일찍이 하늘의 청신천이 사천왕에게 준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더불어, 변광천신은 사천왕에게 이 발우는 미래 부처님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불탑으로 생각하고 공양하고 하였다. <대정신수대장경 3권 692쪽 상단>

이 경설의 내용에 따라 돌발우를 불탑으로 생각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신앙으로 표현한 것이 통도사 봉발탑인 것이다. 즉 가섭 존자가 석가모니부처님의 가사와 발우를 가지고 계족산에서 미륵불을 기다린다는 미륵신앙에 의하여, 융화전 앞에 조성된 것은 당연한 신앙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 필자 우인보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불교학과와 교육대학원(종교교육)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불교미술(서화)을 수학했다.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사학과(박사)를 수료하고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화예술학(박사)과를 졸업했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법사단장, (사)불교사상연구회 이사, 불탑사상연구회 회장, 동국대부속여교 교학실장, 조계사 불교대학 강사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탑과 신앙>, <불교대법계이론(공저)>, <청소년 불교입문(공저)>, <대자유인선사(공저)> 등이 있다.



## KS정품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연등전선 전문 생산업체인 (주)삼정전기과 계약 체결로 KS정품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Ø

방수전선-22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가 8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1.5m / 6cm연등

방수전선-25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가 8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2.5m / 8cm연등

방수전선-30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가 8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5m / 8cm연등

방수전선-50cm  
할인가 70,000원 (5줄이상)  
정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25m / 13cm연등

방수전선-1m  
할인가 90,000원 (5줄이상)  
정가 10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50m / 야외용

방수전선-2m  
할인가 90,000원 (5줄이상)  
정가 100,000원  
• 방수전선 1줄 : 25구  
• 길이 : 50m / 야외용



한지입출대길(大/2도)  
할인가 12,000원 (10x43cm)  
정가 10,000원 (7x30cm)  
• 포장 : 100매 비닐포장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 (100개 이상)  
정가 1,000원  
• 포장 : 봉투 삽입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 (100개 이상)  
정가 900원  
• 포장 : 봉투 삽입

금강경탑다라니  
할인가 160원 (600개 이상)  
정가 200원  
• 포장 : 봉투 삽입

경면삼대삼재부  
할인가 6,000원  
• 포장 : 100매 비닐포장  
• 크기 : 10x15cm / 9x14cm

경면삼재부  
할인가 6,000원(100매)  
• 크기 : 9x20cm  
• 포장 : 100매 비닐포장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무료배송"

• 밀 대 (70개입) @90,000원 (2BOX 이상)  
• 돈타레 (40개입) @90,000원 (2BOX 이상)  
• 원기등 (20개입) @90,000원 (2BOX 이상)

##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등 할인가

- 바림등(6cm) @2,700원 (50개이상)
- 바림등(8cm) @3,200원 (50개이상)
- 바림등(10.5cm) @6,000원 (24개이상)
- 바림등(13cm) @13,000원 (12개이상)
- 바림등(20cm) @35,000원 (4개이상)
- 바림등(30cm) @80,000원

- 공단등(6cm) @2,700원 (50개이상)
- 공단등(8cm) @3,200원 (50개이상)
- 공단등(10.5cm) @6,000원 (24개이상)
- 공단등(13cm) @13,000원 (12개이상)

- 등철사(100개)  
6cm 75,000원 / 8cm 80,000원  
10.5cm 85,000원 / 12cm 90,000원

- 국산 LED전구 100,000원 (1BOX : 50개)  
색상 : 옅물색/주광색
- 전구(10W/5W) @250원/@350원 (1BOX : 100개)  
제조원 : 베트남
- 연일(일반)/바림열일 6,000원 / 8,0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 집계부착 / PVC등표(100개) 20,000원 / 12,000원  
크기 : 8.5x21cm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드라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515-8888-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